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장애인 선교주일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한국장애인선교회”와 “한국장애인우용마을”의 장애우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리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선교헌금 봉투에 “장애우 섬김”라고 기록해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3. 정기 직원회 연가(1/4 분기)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1사분기 정기 직원회를 갖습니다.

4. 담임목사 동정

4월 12일(일) 오후 - 한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에 다녀옵니다.
4월 16일(목) 오후 - 한반도 통일 위한 과제 선교포럼에 다녀옵니다.

5. 아하브코업 홈스쿨 4월 정기모임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0:20 ~ 오후 3:3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및 교육관

6. 교회 홈페이지 장애문제

현재 운영중인 주사랑교회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정상적으로 가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면, 복구하겠습니다.

7. 2026년 4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2.14 ~ 3.13)

4.04(토) 박태성 성도(-2.17) 4.07(화) 이재희 어린이 4.12(일) 김가영 자매
4.14(화) 한은총 자매 4.15(수) 김민준 형제 4.20(월) 오현수 형제

부활과 전도의 달

행사개요

날짜	행 사 내 용
04/12	장애인 선교주일 한누리교회 30주년 행사 초대
04/14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04/16	한반도 통일 위한 과제 선교포럼 (서울신학대 이성봉 총)
04/19	전교인 전도주일 장기 직원회(1/4 분기)
04/26	선교헌신주일 (모로코 중보기도)
05/01	찾날맞이 일식예배 (성찬)
05/03	어린이 주일 (모범어린이 시상)
05/10	아빠 주일 (아빠가 감사 꽃)
05/12	교회어르신 위로 모임
05/17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날
05/24	부부 주일 / 가정의 주일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정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정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령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4/05	이광근 안집사
04/12	임명숙 집사
04/19	김혜숙 권사
04/26	정현숙 권사
05/03	이재우 어린이
05/10	박제연 집사
05/17	이광근 안집사
05/24	임명자 집사
05/31	임명숙 집사



주사랑 9권 15호 | 2026년 4월 12일
창립 2017.11.25 | 장 애 인 선 교 주 일
기 독 교 주 사랑교회
대한성결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04월 2026

부활과 전도의 달

2026포어 :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 일을 얻는 교회 (이사야 40:31)

1일 첫날맞이 월식예배 [성전예식]
고난주간 (3/30-4/4)

2일 성 목요일 [세족식 / 가정 단위 섬김]

3일 성 금요일 [예수 생애와 교훈 영화 / The King of Kings]

4일 성 토요일 [달걀포장 및 달걀전도]

5일 부활절 충동원 감사주일
여전도회 주관 새봄맞이 전도 나들이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7주년 감사예배

12일 장애인 선교주일 / 1사분기 정기 직원회 / 한누리교회 30주년 행사

14일 아하브 코업 홈스쿨 4월 정기모임

16일 한반도 통일 위한 과제 선교포럼 [서울신학대학교 이성봉 총]

19일 전교인 전도주일

26일 선교헌신예배 [모로코 중보기도]

28일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사진: 임명숙 사모 촬영 및 제공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장애인 선교주일) 인도: 한승훈 목사

※ 목 도 누가복음 4:18~19, 21 인 도 자

※ 송영찬송 찬 15장 다 같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40 시편 96편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303장 다 같 이
(날 위하여 십자가의)

대표기도 임명숙 집사
(종교등부 교육부장)

※ 성경 봉독 요한복음 9:1~7(신 161) 임명숙 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눌 성도들 담임 목사

봉헌찬송 찬 384장 다 같 이
(오병이어하신 : 한희락 청년)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1:3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2:34-40 (신 38)

말씀제목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 요 저녁예배

오후 7:30(조직신학).....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일서 5:4-12 (신 309)

말씀제목 조직신학: 삼위일체론

목 요 구역예배

오후 14:00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18:1~16 (구 589)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

금 요 심야기도

오후 7:0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시편 16:1~11 (구 812)

말씀제목 하나님여 나를 지켜 주소서

새벽 기도회(월~금)

새벽 5:30 요한계시록 묵상

13일일 사 40:1-9 여전도회 아유희 예배

14일월 계 10:1-2 바다침송/ 모습

15일화 계 10:3-8 바다침송/ 행적

16일수 계 10:9-10 바다침송/ 안과 마음

17일목 계 10:11-11 땅의침송/ 모습

18일금 계 10:12-18 땅의침송/ 거짓 행적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양기로운 예물 (언금함에 직접 드립니다 / 입금: 2026.04.11. AM 6:00 기준)

십 일 조 : 정현숙 한성결 한승훈임명순 / 임명순

주정현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오동영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한희락 / 한정완

감사헌금 : 박태성 이광근박제연 전복순 정현숙 한성결

부활감사 : 김혜숙 안명숙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박제연 임명자 한승훈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 안명숙 심방감사 : 오동영 임명숙

월삭감사 : 이광근박제연 한은총 한성결 한승훈임명숙 한희락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진영 한태민

선교헌금 : 한승훈임명순 한태민 차랑헌금 : 김혜숙 나승완정영미

건축헌금 : 한승훈임명순

후원헌금 : 오복상방아정 조은교회 무명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선교(오주교총소속)



해와선교(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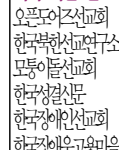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탈북민선교(평화·통일교회)



가타기관 선교



- ⑦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드리는 연보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나요?(고후 9:13~14)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자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느니라
- ⑧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교회에 불신앙자들과 다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고
사도의 권위를 변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고후 10:4-6)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 ⑨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옳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 했나요? (고후 11:13~15)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로
가장하니나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 ⑩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육체의 가시)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오히려 은혜로 여긴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고후 12:9~10)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하리니
이는 ()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 ⑪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엄한 경고를
했는데 무엇인가요? (고후 13:4~5)
그리스도께서 약히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하고 너희 자신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 받은 자니라

(작성하신 답안은 주로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6-15주 / 고린도후서 6장 ~ 15장

- 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고후 6:8~11)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 무명한 자 같으나 ()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을 가진 자로다
- ②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가 곧 무엇이라고 선포했나요?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이 되리라
- ③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신앙의 태도를 바뀐 고린도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나요? (고후 7: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 ④ 사도 바울은 근심과 회개의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을 이루는 것이니라
- 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마케도냐교회를 위해 특별한 선을 베푸는 일을 칭찬하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고후 8:1~5)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게 주었도다
- ⑥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고후 9:7~8)
 각각 그 ()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4월 통일선교기도 - 북한의 동포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 6:11).

① 한국 교회가 담장을 넘는 요셉의 가지로 쓰임 받게 하소서(창 49:22). 북한의 4~5월은 길고 고통스러운 춘궁기(春窮期)의 시기입니다. 오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당국은 주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북한 주민들의 약 40%가 '장기적 만성적 영양 부족 상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황폐한 토지와 산림은 4~5월의 '보릿고개' 기간 동안 허기를 달래줄 풀뿌리도 나무껍질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체적·장기적·만성적 기근의 때에 북한의 식량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지혜의 일꾼을 세워주소서(창 41:54).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 부조리한 구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 중심의 질서'로 변화되게 하소서. 남한에게 베풀어주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사방으로 팍 막힌 북한의 담을 넘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②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마 6:11). 세계에서는 연간 약 13억 톤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고, 남한은 연간 약 470만 톤의 음식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 해 동안에 필요로 하는 약 500만 톤의 식량에 해당합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약 1,070만 명이 '만성적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풍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은 만성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굳게 닫힌 북한당국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북한 당국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풍성한 세상으로 손을 뻗게 하소서. 북한 당국이 주민을 살려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양식이 공급될 수 있게 하소서.

③ 장마당이 복음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게 도와주소서. 북한 주민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장마당이 더욱 활성화 되고 풍성해져 굶주린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장마당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 형성의 접점이 되고 신뢰의 현장이 되어 따뜻한 나눔과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정보와 진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소서. 물품의 나눔과 생계의 연결을 통하여 경제적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기반으로 사용하소서. 장마당을 경험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인식이 변화되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장마당이 단순한 시장의 기능을 뛰어넘어 굶주린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752	북이스라엘 베냐민 등극	왕하 15:27-31
찬송가		찬 322장	다	750	남유다 요담의 등극	왕하 15:32-38
대표기도		말	은이	735	남유다 아하스의 등극	왕하 16:1-20
성경봉독		왕하 18:1~16	윤독	732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하 17:1-4
말씀인도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삶	말	722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유	왕하 17:5-23
합심기도		다	같이	720	사마리아의 앗수르 이주민들	왕하 17:24-41
헌금기도		찬 559장	말	715	남유다 히스기야의 등극	왕하 18:1-16
주기도문		다	같이	701	앗수르의 3차 침공	

■ 들어가는 말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인 18장부터 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25장까지는 남은 나유다의 왕 8명 중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히스기야 이야기(18~20)와 요시아의 통치(22~23)의 통치 내용을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앗수르 산헤립의 침공(18~19장),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사건(2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전능하심, 히스기야의 하나님 신뢰하는 태도를 부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지른 부친 아하스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윗이 행한 모든 선한 길’을 따르으로써 칭찬받은 왕이 됩니다. 그는 우상뿐만 아니라 산당까지 제거하여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자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여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통해 주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와 삶의 연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1~4).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인 호세아 3년에 남유다 왕국의 열두 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한 모범적인 왕으로 성장합니다(BC 715~686).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자 25세에 등극하여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와 눈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칭찬을 합니다(3). 그의 부친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따랐던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범을 입증하는 첫 번째 증거는 우상과 산당의 제사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는 왕실과 성전의 석상과 목상만 없앤 것이 아니라 유다의 역대 선한 왕들(아사, 여호사밋, 요아스, 아합사, 아사랴, 요담)도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산당 제거까지 단행하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가져다가 산당에서 ‘치료의 신’으로 우상숭배하며 분향하는 악습을 저질러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놋 뱀을 가루로 빻아 부르고 “느후스단”이라 부르며 놋뱀의 실체는 그저 ‘놋으로 만든 뱀’에 지나지 않음을 밝힙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은 신실함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남녀가 결혼으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충성, 애정, 친밀감 등을 뜻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과의 연합에 관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대하 28~31장). 단독 통치를 시작한 직후 그는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화했으며, 남유다 및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쇄신은 앗수르의 위협이 등등한 시기에 신앙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오직 언약의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정치·외교적으로도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앗수르와 이집트를 섬기려 했던 북이스라엘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신 왕(5~8).

히스기야 왕의 모범적인 삶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화답으로도 증명됩니다. 전례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항상 동행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였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나가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던 아하스의 아버지 아하스 왕 당시에는 블레셋에게 쉼팔라와 남부 성읍들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지만(대하 28:18), 이제 블레셋조차도 히스기야 왕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블레셋의 가사와 그 주변을 사람이 적은 곳부터 많은 곳까지 점령했습니다(8). 앗수르에 귀속된 성읍을 공격한 것은 앗수르를 배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우리와도 응답과 소통과 축복과 형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왕(9~16).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를 반복함으로써 히스기야 왕의 숭고한 신앙을 부각시킵니다(9~12).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는 히스기야의 통치(섭정) 시기임을 일리며, 멸망과 생존을 겪는 두 왕국을 대조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제 14년(BC 701년)에 앗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 왕국을 3차로 침공합니다. 남유다는 46성읍을 빼앗깁니다. 현재는 블레셋과 유다의 국경 부근인 라기스에 기지를 두고 예루살렘을 넘보고 있습니다(14, 17). 그리고 안티갑게도 반앗수르 정책을 시행하던 히스기야는 앗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자,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동행해주셨던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앗수르 왕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14). 이는 앗수르와의 종속 관계를 배반했음을 시인하는 뜻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산헤립에게 조공으로 바친 은금은 은 300달란트(약 10톤)과 금 30달란트(약 1톤)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는 이 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수리했던 성전과 왕궁의 보고에서 은을 꺼내주었고, 그가 금을 입혔던 성전 문들과 기둥에서 금을 벗겨 내어 앗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물론 전쟁보다 평화가 낫기에 그의 시도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진실함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회복했습니다. 외교와 정치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 유지와 신앙개혁을 위해서는 주를 향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삶과 예배를 일치시키고, 그분의 선함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